

# 신안 농기계임대사업 “효자가 따로 없네”

### 전화 한번으로 배달에서 회수까지 원스톱서비스 농업인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기계용 향상 기여

신안군에서 추진중인 농기계 임대 사업이 지역 농민들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올해는 8,800농가에서 임대 전년대비 1,400농가가 더 이용하여 농업인들에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 및 기계회용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러한 추세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노후 농기계를 불용 처리하고 신기종 농기계를 구입해 농가의 적기 영농을 도왔다.

특히 지난해부터 중부권역(압해·자은·안좌·팔금·암태) 영농현장 농기계 배달서비스 시범 운영에 이어 올해부

터는 전 읍·면 영농현장 농기계 배달 서비스를 실시 영농현장에서 농기계 사용 안전교육으로 농기계 사용 중 사고위험을 줄이고 농업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의 혜택 등 바쁜 농번기철에 편리하게 농기계를 빌려 쓸 수 있어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가에서는 그동안 운송이 어려워 이용하지 못해 많은 애로를 겪었는데 전화 한번으로 영농현장까지 직접 농기계를 배달에서 회수까지 원스톱서비스로 매우 만족스러워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당부하였다.



한편 올 4월부터 코로나 19로 인한 임대료 50% 감면 시행으로 7,400농가에 1억여원의 감면 혜택을 주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었으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따라 임대사업용 파쇄기를 활용 영농 부산물을 파쇄 작업을 내년 3월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전국 최초 읍면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설치 운영하여 농번기 일손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였고 앞으로도 적기 영농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영광군, 지적재조사사업 최우수기관 표창

### 드론 활용 도시발전방향 제시·항공사진 이용 모바일 GIS 구축 등

영광군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기초지자체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2일 기관표창을 수상하였다.

이번 수상은 특히 드론을 활용해 도시계획분야, 공간계획분야 등 도시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항공사진을 이용해 상시상황이 확인가능한 모바일GIS 구축으로 보다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현장업무에 적용 및 활용할 수 있게되어 영광군의 적극적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인정받았으며, 타 지자체에 비해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내 ‘최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영광군은 2008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7개 지구 19,304필지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2021년에는 영광읍 도시지역 1개 지구 12,706필지로 전국 지자체 중 최대 업무량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

김범상 종합민원실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을 해결하고 토지 이용가치를 높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 무안군, 어선 노후기관 장비 대체사업 ‘호응’

### 올해 1억 7000만원 투입·어선 35척에 기관·장비 지원

무안군은 올해 연료비 절감과 탄소배출량 감축 등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를 연안어선 35척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노후기관·장비·설비 대체 사업’은 저효율(육상기관 포함) 기관과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기관의 대체, 어선의 안전·복지 등을 위한 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품목에는 해상용 디젤기관, 선외기 엔진, GPS플로터, 어군탐지기, 레이더, 양승기, 양망기 등이 포함된다.

군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어



업인을 대상으로 올해 총 사업비 1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기관 대체 8척, 장비 보급 27척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5년간 총 9억 5000만원을 투입해 157척의 어선에 기관 및 장비를 지원하였다. **무안=이기성기자**

## 영암군, 전남 일자리 창출 ‘3년 연속’ 수상

영암군이 전라남도에서 선정하는 일자리 창출분야 우수 시군 선정결과 ‘우수상’ 기관표창을 받으면서 시상금 1천만원과 더불어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전라남도에서는 매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실현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분야 전반에 대한 시책을 평가하여 우수 시군을 선정하고 있다.

고용지표, 일자리 예산, 청년 신중년 일자리, 타 시군과 차별화된 일자리 시책 등 5개분야 11개 항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며영암군은 2018년 부터

평가가 시행된 이후 한차례도 놓치지 않고 3년 연속 수상해 오고 있다.

평가결과 영암군은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통하여 대북국가 산업단지 고용활성화 및 조선산업 안정화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마을로·내일로·농수산 유통활동가 사업 등을 통해 100여명의 청년들이 영암을 떠나지 않고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하였으며, 대불산단 근로자 복지센터 운영, 군장병 취업지원, 수요맞춤형 교육훈련 등 우리 지역에 맞는 시책을 발굴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영암=조대호기자**

## 목포시, 도 경제분야 평가 전분야 수상

### 일자리 창출 ‘대상’·지역경제활성화 ‘최우수상’·투자유치 ‘우수상’

목포시가 전라남도 경제부문 평가에서 모든 분야 수상의 쾌거를 이루며 경제 분야 최강도시임을 확인시켰다.

전라남도가 주관한 이번 평가에서 목포시는 ▲일자리창출 부문, 대상 ▲지역경제활성화 부문, 최우수상 ▲투자유치 활동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특히, 최우수상을 수상한 지역경제활성화 부문 등 부문은 각각 6년 연속 수상하며 목포시의 역량을 증명했다.

일자리 창출 평가는 전남 22개 시군의 고용지표, 일자리 예산증가 및 집행현황,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등 5개 분야 11개 항목의 실적을 종합하여 선정했다.

시는 지난해 일자리창출 전담부서를 신설 후 청년일자리,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에 총력을 기울여 총 4,263개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보였다.

특히, 청년창업자 금융지원, 청년 잡고(JOB GO), 마을로·내일로 프로젝트, 청년 농수산유통 활동가 육성 등 청년 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지원 사업에서 벗어나 전국의 역량 있는 청년 인재들이 목포에 자발적으로 모일 수 있

도록 새로운 청년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평이다.

경제부문 종합평가로 일컬어지는 지역경제활성화 평가에서는 6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공공요금 관리실적, 중소기업 지원 육성, 소상공인 자영업자 시책 등 6개 분야 13개 지표에 대한 추진 성과를 서류 심사 및 외부 평가를 통해 진행된 지역경제활성화 평가에서 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시책으로 신(神)의 장사전략 아카데미를 추진하였는데 장사의 기술 및 영업노하우를 전수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수요자 대부분 영업 매출이 증대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목포시가 투자유치 활동 종합평가에서 지난해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올해 우수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은 대양산단 분양에 있어 입주기업 수요에 맞춘 유치업종 변경, 필지 분할 등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기반 여건을 조성해 기업유치를 이끈 점이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목포=박정수기자

## 함평군, 연말연시 기부행렬 줄잇는다

함평군은 지난 1일부터 시작된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을 비롯해 연말연시 기부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함평사무기(대표 김화영)는 최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00만 원을 나눔캠페인에 기탁했다. 21일에는 (사)대한한돈협회 함평지부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1000인분에 달하는 한돈 200kg을 함평군에 기부했다.

22일에는 학교농공단지협의회(협의회장 정우현)에서 3천800만 원, 함평군공직자 일동 792만 원, 함평군산림조합(조합장 이광우)에서 300만 원, 鄭경복궁(대표 홍경미)에서 200만 원, 카페인(대표 정혜인)에서 100만 원을 각각 나눔캠페인에 지정 기탁했다.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함평군인재양성기금도 연이은 기탁행렬에 올 한 해 동안만 1억 원 가량이 새로 적립됐다. 함평천치버섯영농조합법인(대표

박준호)은 최근 함평군인재양성기금에 1천만 원을 기탁했다.

23일에는 함평성점속꽃차(대표 성점속)에서 20만 원, 함평정년회의소(회장 이석재)와 한일모터펌프(대표 김성복)에서도 각각 2백만 원을 기탁하며 인재양성기금 조성에 힘을 보탰다.

기부 열기는 각 읍면까지 이어졌다. 지난 21일 지역 대응면에 소재한 함평대동교회(담임목사 광승호)에서 170만 원 상당의 라면 100박스를 기부했다.

같은 날 손불면에 소재한 석정식당(대표 윤선웅)에서도 성금 36만2천 원, 손불면기독교연합회(회장 서종석)에서 50만 원, 대전양면(대표 김대웅)에서 500만 원 상당의 라면 100박스과 쌀 50포(20kg), 손불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백경갑)에서 이불 70채와 현금 100만 원(5개 가구 20만 원)을 각각 기탁했다. **함평=김광춘기자**

#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